

골프&

10

2018년 11월 1일 목요일

스포츠동아

오늘 개막 ‘KPGA 코리안투어 A+라이프 효담 제주오픈’ 관전포인트



이형준



맹동섭



엄재웅

단 하나뿐인 대상 타이틀…박상현 대항마는?

포인트 선두 박상현 이번 대회 불참
최종전도 불투명…경쟁자 동기부여
이형준·맹동섭·엄재웅 추격 가시권

하나뿐인 대상 타이틀을 놓고 펼쳐지는 경쟁이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그 향방을 가를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 투어 A+라이프 효담 제주오픈(총상금 5억원·우승상금 1억원)이 1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세인트포 골프앤리조트(파72·7433야드)에서 나흘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최종전인 투어 챔피언십을 앞두고 펼쳐지는 이번 대회는 박상현(35·동아제약)과 추격자들의 대상 다툼이 최대 관전 포인트다.

올 시즌 상금왕을 확정지은 박상현은 제네시스 대상 포인트에서도 단독선두(4412점)를 달리고 있다. 유일하게 3승을 거두며 다관왕 등극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이형준(26·웰컴저축은행)과 맹동섭(31·서산수폴프앤리조트), 엄재웅(28)의 추격 역시 만만치 않다. 우승 없이 매 대회 상위권 성적을 기록하고 대상 포인트 3914점을 따낸 이형준은 박상현을 단 498점 차이로 뒤

쫓고 있고, 맹동섭과 엄재웅 역시 각각 3514점과 3449점을 얻어 충분히 욕심을 낼 수 있는 위치다.

코리안투어는 대회 우승자에게 1000점, 준우승자에게 600점을 부여한다. 아직 두 대회가 남아있는 만큼 대상 다툼은 이번 A+라이프 효담 제주오픈을 통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박상현의 경우 이번 대회에 불참하고, 최종전 역시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다. 경쟁자들이 더욱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다.

이형준은 “순위를 뒤집을 가능성은 충분

히 있다고 생각한다. 우승을 거두고 제네시스 대상 포인트 1위로 올라선 뒤 대상을 거머쥐고 싶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만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PGA는 올 시즌 마지막으로 제주도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를 맞아 갤러리 무료입장 이벤트를 진행한다. 2010년 토마토저축은행 오픈 이후 8년 만에 KPGA 코리안 투어를 개최하는 세인트포 골프앤리조트는 올 시즌 가장 긴 전장(7433야드)을 조성해 갤러리들에게 호쾌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두바이 품은 터키 10일

A380 구간 비즈니스 왕복·ALL 특가호텔
두바이 관광·오리엔트 Express 레스토랑 정찬
2019 (1/27), (2/10, 17, 24) (3/3)
하안풍차투어 문의: 02-777-6566



로드FC ‘대전상륙작전’

3일 XIAOMI 050, 17일 UCTA 개최



로드FC가 오는 3일과 17일, 두 번 연속으로 대전에 상륙한다. 프로 경기와 아마추어 경기 개최를 통해 격투기 파티를 연다.

로드FC는 3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XI AOMI 로드FC 050을, 17일 로드FC UCTA 대전 오픈셀집에서 제 44회 센트럴리그와 제5회 WFSO(세계격투스포츠협회) 유소년리그를 개최한다.

대전은 격투기 팬들과 체육관이 많은 곳이다. 그러나 MMA 메이저 대회가 열렸던 적은 한번도 없다.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팬들은 MMA 대회에 진한 갈증을 느껴왔다. 로드FC는 이런 대전 팬들의 갈증을 해소시키기 위해 11월에만 두 번이나 대회를 개최기로 했다. 넘버시리즈에 아마추어리그인 센트럴리그, 그리고 WFSO 유소년리그까지 연달아 연다.

로드FC 역사상 처음으로 대전에서 대회를 열기에 대전부터 대전에 최적화시켰다. 로드FC는 대전 출신이나 대전에 있는 팀에 소속된 파이터들을 대거 투입했다. ‘아재 파이터’ 최무배, ‘태권 파이터’ 홍영기, ‘괴물 레슬러’ 심건오, ‘타격 지니어스’ 심유리 등 대전과 관련된 파이터가 무려 9명에 이른다.

센트럴리그와 WFSO 유소년리그를 통해서도 아마추어 선수를 발굴한다. 전 밴텀급 챔피언 이윤준, 기원빈, 이예지 등이 센트럴리그를 거쳐 로드FC 프로 무대를 밟았다.

로드FC 김대환 대표는 10월 31일, “내고향인 대전은 격투기 팬들이 많은 곳임에도 그동안 메이저 MMA 대회가 열린 적이 없었다. 오래 기다려왔을 대전 팬들을 위해 열심히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전 출신 파이터들이 대거 출전하고, 또 센트럴리그와 유소년리그도 함께 연다. 11월에 대전은 격투기 파티로 팬들을 즐겁게 할 것이다. 많은 기대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은상 기자 award@donga.com

스포츠동아·XGOLF가 뽑은 2018 소비자 만족 10대 골프장 후보 | 클럽모우

정락산 정기받은 클럽모우 캐디·그린피 만족도 굿

클럽모우 골프 앤 라이프스타일(대표이사 남권진)이 스포츠동아와 XGOLF(대표 조성준)가 공동 주최하는 2018소비자만족 10대 골프장 후보에 올랐다.

1994년 개장한 27홀 골프장 클럽모우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고객들이 남긴 평점에서 전체 9.0의 성적표를 받았다. 캐디서비스(9.2) 그린피만족도(9.2) 코스관리(9.1) 식음료만족도(9.0)에서 모두 9점대의 높은 점수를 얻었다.

클럽모우는 고객들의 평가라운드를 거쳐 10대 골프장 최종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평가라운드는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국내 골프부킹 서비스 XGOLF 채널(www.xgolf.com)을 통해 16개 후보 골프장을 예약한 고객이 남긴 후기를 11개 항목에서 구체적으로 평가한 점수를 반영한다. 평가라운드 이용후기와 후보선정 당시 이용후기 점수를 각각 50%씩 합산해 소비

자만족 10대 골프장을 최종 선정한다.

●장락산 휘감는 자연친화적 코스

강원도 홍천군 서면 장락동길11에 위치한 클럽모우(http://www.clubmow.com)는 유명 골프코스 디자이너 마이클 허잔과 다나 프라이가 동반 설계한 자연친화적 컨트리클럽이다. 인공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계곡과 호수를 설계 중심으로 둔 덕분에 광활한 규모의 수목을 잘 조화시켰다.

전장은 마운틴 코스(파36·3099m)와 오아시스 코스(파36·3201m), 와일드 코스(파36·3021m)로 나뉜다. 마운틴 코스는 1번 홀과 2번 홀에서 볼 수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이 백미다. 2번 홀을 지키는 장락산은 1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위풍당당한 모습을 잃지 않고 있다. 까막딱따구리와 황조롱이, 붉은배새매 등 희귀조류를 포함해 담비, 멧토끼, 너구리 등 야생동물의 흔



클럽모우가 스포츠동아와 XGOLF가 공동 주최하는 2018소비자만족 10대 골프장 후보에 올랐다. 1994년 개장한 27홀 골프장 클럽모우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고객들이 매긴 평점에서 전체 9.0을 받았다. 강원도 홍천의 장락산을 휘감은 코스로 고객들의 감탄을 자아내고(왼쪽), 클럽하우스는 예술미를 뽐낸다. 사진제공 | 클럽모우



적도 쉽게 찾을 수 있다.

●국내 최대 표고차의 와일드 코스 5번 홀

오아시스 코스는 다양한 형태의 계곡과 크고 작은 연못들이 어우러져있다. 호쾌한 코스 공략이 가능해 도전의 묘미를 느낄 수 있다. 와일드 코스의 자랑은 파35번 홀이다. 국내 최대 표고차(50m)로 유명세를 얻었다. 티잉 그라운드에서 출발한 공이 수직에 가까운 경사를 따라 내려가면서 그린 위에 안착하는 모습은 모두에게 새로운 경험이다.

이처럼 클럽모우는 광활한 규모 안에 다양한 낮낮이의 코스들이 자리 잡고 있다. 총면적이 185만㎡(약 56만평)에 달해 36홀도

담을 수 있지만 27홀만을 구성해 홀별 독립성을 최대한 확보했다.

클럽모우를 경험한 내장객들은 잘 가꿔진 코스에 높은 점수를 매겼다. 지난달 방문한 손OO 씨는 XGOLF 채널(www.xgolf.com)에 직접 남긴 후기를 통해 “소문만 듣고 찾은 골프장이었는데 예상대로 조정과 코스 관리가 잘 돼 있었다. 특히 페어웨이와 그린 컨디션이 좋았다”고 호평했다.

같은 시기 클럽모우를 찾은 김O 씨는 “양자리 페어웨이와 그린의 잘 관리된 상태였다. 다만 페어웨이가 좁고, 그린 언드레이선이 심해 호불호가 약간 갈린다”고 말했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채식주의자’ 그레이, 지치지도 않네

육식 안 먹고 7경기서 평균 27분 펄펄
스틸 1위·AS 3위…체력도 실력도 굿



창원 LG 관계자들은 단신 외국인선수 조쉬 그레이(25·180.9cm)를 보면서 적지 않은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다. 그의 플레이와 활약상 때문만이 아니다. 그레이는 육식을 전혀 하지 않는 채식주의를 가지고 있다. 외국인선수로는 매우 드문 스타일이라 LG 관계자들과 코칭스태프는 영입 초기에 약간 걱정했다. 잘 먹고 잘 쉬어야 하는데 육식을 전혀 하지 않으면 체력적으로 힘들어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래서 연고지인 창원에 그레이가 충분히 식사를 할 수 있을만한 레스토랑도 별도로 섭외해놓기도 했다.

그런데 LG 관계자들은 그레이의 개인 훈련 스케줄을 보고 한 번 더 놀랐다. 그는 시즌 개막일 전까지 매일 새벽에 개인운동을 했다. 조기 출근해 다른 선수들보다 먼저 슈

팅과 드릴 훈련을 따로 실시했다. 시즌이 시작하기도 전에 너무 훈련량을 많이 가져가는 것을 보고 자칫 시즌 개막 직후 지칠 것으로 우려했다.

하지만 모든 건 기우였다. 그레이는 시즌에 돌입해도 전혀 지친 기색 없이 매 경기 좋은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31일까지 7경기에서 평균 27분 정도를 뛰며 18.14점·6.0리바운드·5.7어시스트·3.0스틸 등으로 각 기록에서 고른 수치를 드러내고 있다. 어시스트는 전체 3위, 스틸은 전체 1위다. 팀도 4승 3패로 괜찮은 출발을 보이고 있다.

그레이의 유일한 단점을 3점슛이다. 그레이는 3점슛 48개를 시도해 9개만 성공시켰다. 3점슛 성공률이 18.8%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LG 코칭스태프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 눈치다. LG 현주엽 감독은 “지금의 슛 폼으로 미국프로농구 하부리그에서 30%대의 성공률을 기록했다고 한다. 게다가 본인이 워낙 노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 점차 좋아질 것으로 본다”고 믿음을 보였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